

시선

사설

‘독자’와 ‘저널리즘’  
62년 맞는 대학주보의 다짐

우리신문이 창간 62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학내 구성원 미디어 이용실태 설문조사’에서 구성원은 오늘날 미디어 업계가 고만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짚어주며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짚어주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전 세계의 모든 언론사가 고민해온, 그러면서도 여전히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오래된 화두다. 그동안 누구도 ‘정답’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급속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이 한해가 다르게 미디어 이용환경의 변화를 야기한 탓이다. 언론계가 지면에서 데스크탑 PC 속으로 옮겨간 미디어 이용자들의 시선에 대응하려 분주했던 사이에 2007년 등장한 아이폰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개막하며 미디어 패러다임을 ‘데스크’에서 손 안으로 옮겨버렸고, 언론계가 작아진 화면과 새로워진 UI에 대응하려 고심하던 와중에 2008년 말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며 영향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페이스북은 본격 ‘SNS 미디어’의 시대를 열어버렸다. 지난 2012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오랜 고민에 대한 결과물로서 ‘스노우 폴’이라는 기획 기사를 내어 놓았다. 이 기사는 2013년 풀리처 기획보도 부문상을 수상하며 미디어 컨버전스와 인터랙티브 뉴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과 제작 시간이 소요되는 스노우폴 식(式) 기사는 점차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언론계는 좀 더 본질적인 언론의 의미에 대해 고뇌하게 됐다. 다시, ‘저널리즘’에 대한 고민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신문은 지면매체와 웹페이지는 물론 이메일 뉴스레터와 다수의 소셜미디어 채널 등 유통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구성원과의 접점을 늘리는 한편 ‘디지털 환경 지향적인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뉴스의 형식 역시 카드뉴스, 영상뉴스 등으로 다양화하며 독자들에게 ‘찾아가는 언론’이 되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구성원은 단순히 ‘보는(see)’ 뉴스 보다는 ‘읽는(watch/read)’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고 응답하면서 결국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사의 유통방식이 아닌 기사에 담긴 메시지와 사유의 깊이임을, 곧 저널리즘임을 지적해주었다.

구성원의 이 같은 지적은 유독 ‘스토리텔링’이 전 분야에 걸쳐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귀담아들을 급언이 된다. 콘텐츠 내부에 집중하는 내러티브와는 달리 스토리텔링은 콘텐츠가 향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오랜 역사를 지닌 내러티브에 대한 존중 없이 스토리텔링에만 집중할 경우 정작 콘텐츠는 사라지고 유통 방법론만이 남는 아이러니가 생겨나기 쉽다. 이번 설문조사가 대학주보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하겠다.

‘변화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변화’라는 말이 있다. 혁신을 단행하려 할 때 기존과는 다른 약간의 변화만을 성취한 후 자칫 그것을 혁신이라고 여기고 안주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이다. 우리신문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해감에 있어 그 지향점을 ‘디지털’이 아닌 ‘독자’로 맞추겠다. 미디어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대학주보가 추구해야 할 본령의 질문임을 알고 더욱 신뢰감 있는 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해 독자 여러분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학교 장진 석학교수

2017 호암상 수상 영예

미디어 여론동향 2017. 5. 1. ~ 5. 14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전용우 회장, 김마루 학술연구연합회장, 신예은 동아리연합회장이 잇달아 사퇴했다.(회장 비롯한 국운위 성원 사퇴 ... 교수성추문 진상조사 ‘정지’/대학주보 온라인, 2017.5.2) 지난달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신 동연장에 이어 전 회장과 김 학연장도 지난달 30일 각각 사퇴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문과 운영위원회에서 국문학과 교수 성추문 사건에 대응하는 데 주축이 됐던 인물들로 해당 사건 해결이 미진하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전 회장은 본인이 다른 성폭력 사건의 피고소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운위 대표 인사 3인의 사퇴로 인해 국문학과

창간 62주년 기념 만평



이소진 기자

진정성 있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보통 본지 취재수첩은 간결체를 쓰지만 이번 취재수첩은 높임말로 써볼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취재였습니다. 하루 만에 목포신항과 안산을 거치는, 1000km가 넘는 길을 다녀왔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세월호’라는 무거운 주제를, 아직 많은 경험도 못해본 제가 다룬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마주한 세월호와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은 지난 기간 제가 언론을 너무 가벼이 여긴 벌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2014년이나 지금이나 언론은 변한 게 없어요. 그 때도 애들 올라온 것만 보도했잖아요. 기자들한테 늘 얘기해요. 가족들한테 그런 것만 물어보지 말고 언론에 안 나온 것 좀 보도해 달라. 근데 그냥 늘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어진 ‘동수 아버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 적던 손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들, 기레기라고 불러요.”

저 또한 원하는 것만 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더 중요한 뉴스와 덜 중요한 뉴스 중 당연히 더 중요한 뉴스를 택했습니다. 화제가 될 만한 뉴스와 화제가 되지 않을 뉴스 중 화제가 될 만한 뉴스를 쫓았던 것 같습니다. 스치듯 지나간 여러 사건 중에, 중요하지 않았던 사건이 어디 있었을까요. 제

가 다가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외치고 싶었던 이는 얼마나 될까요. 저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제가 만날 수 없는 일들은 앞으로 몇 개나 될까요.

늘 기사를 내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마감이 닥쳐왔다고, 기사가 부족하다고, 취재기간이 촉박하다고 사람을 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취재수첩의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느꼈을 겁니다. 다만 현실의 상황이 무서워 무거움을 외면하려 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외면이 하나 둘 쌓이니 점점 무더져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취재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애써 ‘힘들었잖아’, ‘바빴잖아’, ‘할 만큼 했잖아’라며 합리화 해왔던 저를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포신항에서 언론에 대한 개탄을 쏟아내던 동수 아버님을 기억하며, 목소리에 눈물이 맺힌 미수습자 은화 어머니를 기억하며, 안산 기억교실에서 지금도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밀려오는 듯 해 쉬이 셔터를 누르지 못한 순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실에 대한 무거움을 늘 되새기겠습니다.

기억교실을 둘러보고 밀려오는 먹먹함에 뒤돌아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기자에게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고운이 어머니가 다가와 안아준 기억이 납니다. 포용으로 위로 받았던 그 순간처럼, 기사가 그대들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은 곳의, 더 구석진 곳의, 더 어두운 곳의 이야기를, 사람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다짐이 아닌, 대학주보 모든 기자들의 다짐일 것입니다.

이색 기고문에  
감사한다

세시봉

이수형 (서울뉴스팀장)



우리신문은 개교기념특집호를 꾸리고자 구성원 대표들에게 기고를 요청했는데 감사하게도 5명의 기고자가 글을 보냈다. 경희학원 공영일 이사장은 ‘경희가 이룩한 지난날의 빛나는 성취’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덧붙여지게 풀어 썼고,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진도원 회장은 ‘원로 교수님들과 동문 여러 분들’에게 ‘재학생들을 대신해 감사’했다. 직원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우리대학의 노조이사제 도입을 기원했다.

그러나 개교기념 축하 정도의 글을 보낼 것이라 생각한 우리신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글들도 있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권예하 회장은 “본부가 자랑스러운 경희를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은 학교의 퇴행을 목격하는 듯하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대학의 비민주적 운영’을 열거하는 한편, 유학생회 허문천 회장은 “학교가 유학생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가 유학생을 ATM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학교에 대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로이 적어 달라’고 요청했다곤 하지만 개교기념호 기고글로는 이색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편집인들은 속된 말로 ‘병절’ 수밖에 없었다.

개교기념일 기고로 학교에 ‘탄원’

이들의 요구 찾아 들겠다

본래 기고글을 요청한 목적은 개교 68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자는 의미가 컸다. 이번 신문의 또 다른 이름이 개교 ‘기념’ 호이니 말이다. 편집인들이 당혹스러워한 이유는 이 목적과 다른 글을 받아 당황한 것이 첫 번째였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들의 요구를 모르고 있지 않았는데...’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특히 허문천 회장이 요구하는 바는 거칠고 강한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 글을 기고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다수 유학생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글을 쓰면서 ‘늘 당신의 옆에서’라는 슬로건을 처음 두면서 한 다짐을 다시금 되새긴다. 당황이 가신 지금은 이 이색 기고문에 감사한다.

우리신문에 원망어린 개교기념 기고문을 보낸 이들에게, 또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교 68주년은 어떤 의미일까.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모교의 생일일까. ‘불통’이고 ‘유학생을 돈 나오

는 기계로 아는’ 학교가 도취에 빠진 날일까. 이들의 요구를 찾아들겠다. 능력이 부칠 수도, 혹은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신문은 다음 개교기념호에는 모든 기고자에게 기분 좋은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교기념 기고를 받은게 아니라 우리신문의 창간에 맞춰 의견을 모은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정진하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어느 유학생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라는 허문천 회장의 문장이 마음에 절절히 울린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혜경 | 편집장 기호용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